

군산 나운2동,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

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'내부 주거환경 개선사업'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

이번 사업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세심한 관찰로 시작됐다. 평소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, 집 안팎에 악취와 쓰레기 적치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던 통장이 해당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.

이에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신속히 선정하고 지원에 착수했으며, △행정복지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지원 △관리소 및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의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유지보수 △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△나운2동 부녀회의 노력봉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.

특히 나운2동 부녀회원들은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현장에 따뜻함을 더했다. /군산=김만호 기자